

# 광주 대학생 74% “일자리 있으면 광주에 취업하고 싶다”

# 광주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조현민(31)씨는 어린 시절부터 관심이 있던 애니메이션학과 진학을 위해 고향을 떠나 충남 아산에 있는 순천향대로 진학했다. 조씨는 졸업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었지만, 애니메이션 관련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경기도의 한 게임 회사에 취업해 그 래픽 제작 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원하는 학과나 직종이 수도권에 많이 분포돼 있다 보니 고향에 머물고 싶어도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광주는 일자리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직무와 연관된 모임이나 행사도 적어 경력을 쌓기 어렵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 광주의 한 대학교를 졸업한 박지만(29)씨도 일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서울에 정착했다. 박씨는 “부모님과 친구들이 모두 광주에 있어 광주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전공을 살릴 만한 직무 자체가 적어 서울에 살게 됐다”며 “선택지는 결국 수도권뿐이었고, 아직도 고향을 떠나

광주경총, 조선대생 307명 설문…“전공 살릴 일자리 없고 급여 낮아” 대학 교육 현장 실무 중심·기업 맞춤형 프로젝트 교과 과정 도입 필요

혼자 사는 삶이 쉽지 않고 외롭다”고 털어놨다.

지역 청년들이 ‘탈 광주’를 선택하는 배경에는 개인의 선호보다 구조적인 일자리 문제와 전공 mismatch가 자리 잡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역 청년 대다수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취업 준비생 대상 현장 실무 중심 교육과 산학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는 조선대학교 취업전략팀과 리서치 전문기관 와이즈초이스에 의뢰해 조선대학교 재학생·지역 청년 307명을 대상으로 한 ‘취업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광주 지역 기업에 양질의 일자리가 있

다면 취업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3.9%가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매우 있다’는 44.0%로 가장 많았고, ‘있다’ 역시 30.0%였다. 지역 청년 10명 중 7명 이상이 여건만 갖춰진다면 광주에 정착해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취업 희망 근무 지역에서도 수도권(41.7%)과 광주(40.4%)는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여기에 전남(11.1%)을 포함하면 광주·전남 지역 근무를 희망하는 비율은 51.5%로, 수도권 선호도를 웃돌았다.

지역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이뤄질 경우 청년 유출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지역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현실 인식은 녹록지 않았다. ‘광주 지역에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

자리가 충분하’라는 질문에 부정적인 응답이 38.4%로 긍정적인 응답(27.7%)을 크게 앞질렀다.

지역 취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전공 관련 일자리 부족’이 46.6%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급여 수준이 낮음’(18.9%)이나 ‘기업 인지도 부족’(17.3%) 등을 크게 웃돌았다.

직업 선택의 절대 조건으로 여겨졌던 임금 문제보다는 전공과 경력 등을 연계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지역 청년 유출의 핵심 원인이라는 게 광주경총의 설명이다.

청년들은 지역 대학의 교육 방향성에 대해서도 분명한 요구를 드러냈다.

지역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이 강화해야 할 교육으로는 ‘현장 실무 중심 교육’이 43.0%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이어 ‘기업 맞춤형 프로젝트’(21.5%), ‘인공지능(AI)·스마트 제조 등 최신 기술 교육’(17.9%) 순이었다. 청년들은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조운성 조선대 취업학생처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막연히 지역을 떠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남고 싶어도 일하고 싶은 직무가 없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현장 실무 중심 교육과 기업 맞춤형 프로젝트를 교과 과정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청년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확인된 만큼 기업에는 청년들이 원하는 직무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에는 실무형 인재 양성 교과 과정을 제안해 지역 고용시장의 부조화를 줄여나가겠다”며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광주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경총은 조선대와 협업한 G-CEO, G-HR 포럼 등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을 파악하고 이를 교육 과정에 반영하는 등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한전 공공기관 최초 2년 연속 ‘감사원 콘테스트’ 대상

### 해외사업 전주기 성과감사 호평

한국전력이 공공기관 최초로 2년 연속 ‘감사원 콘테스트’에서 대상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지난 19일 감사원이 주최한 ‘2025년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에서 한전 감사실이 공공기관 최초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는 감사원이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 적용 대상인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720개의 자체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우수 감사 사례를 선정·공유하는 행사로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173개의 자체감사기구가 응모했으며, 감사원은 3단계 전문 심사를 거쳐 감사내용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이미현(왼쪽)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전영성 한전 상임감사위원에게 상패를 전달하고 있다. <한전 제공>

그 결과 한전 감사실은 2024년에 이어 올해도 ‘해외사업 전주기 성과감사’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해 공공기관 최초로 2년 연속 대상 수상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상 수상은 2023년 3월 전영성 한전 상임감사위원이 취임한 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내부통제 기반 리스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한 점과 2023년 9월~2024년 1월에 추진된 감사원과 협력감사 등으로 축적한 경험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된다.

한전 감사실은 이같은 활동을 기반으로 ‘해외사업 전주기 성과감사’를 첫 수행했고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해외사업 전주기 성과감사에서 공개출처 정보(OSINT) 검색, 데이터 비저장형 인공지능(AI) 활용 등 최신 통신기술(IT) 감사기법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감사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 점도 호평 받았다.

한전 감사실은 이번 감사를 통해 929억원 안

## 신한카드 가맹주 개인정보 19만건 유출

### “영업 실적 위한 내부 일탈”

### “일반고객 정보는 포함 안돼”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생년월일을 포함한 개인정보 약 19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18

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 총 19만2088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신한카드는 다만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나 카드번호·계좌번호 등 신용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가맹점 대표자 외 일반 고객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는 일부 직원이 신규 카드 모집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탈행위를 하면서 비롯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영업점을 관리하는 내부 직원이 가맹점 대표자를 대상으로 신규 카드 모집 실적을 올리고 싶어서 신규 가맹점 대표자의 정보를 설계사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유출됐다”며 “마케팅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서 원래는 제공하면 안 되는 정보”라고 밝혔다.

해킹 등 외부 침투에 의한 것이 아닌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할 염려가 없다고 신한카드는 덧붙였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회계사들 “내년 1분기 반도체 호황

### 민간소비 점진적 회복세도 기대”

공인회계사들이 내년 1분기 경기 전망에 대해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고 민간소비 활성화 등 회복세를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23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4분기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CPA BSI)’에 따르면 회계사들이 평가한 올해 4분기 경제 현황 BSI는 101, 내년 1분기 전망 BSI는 108로 집계됐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하면 경기 호전을,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현황 BSI는 직전 3분기(93)보다 소폭 올랐다. 반도체 경기 호조로 수출 회복세가 이어진 점,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으로 민간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점 등이 반영됐다. 다만 고물가와 누적인고금리 부담 우려 등도 반영돼 현황 BSI는 기준치(100)를 소폭 넘는 데 그쳤다.

연구원은 “수출 회복 기조에 더해 금리 하락 기대,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 효과까지 반영돼 민간 소비의 점진적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금호타이어 함평 신공장 부지서 윤리경영 선포식

금호타이어는 “지난 22일 함평 신공장이 들어설 빛그린산단 부지에서 ‘윤리경영 선포식’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행사에는 노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윤리경영 준수를 통한 책임 있는 윤리경영 실천을 다짐했다.

〈사진〉

금호타이어는 함평에 미래형 스마트 타이어 생산 기지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2027년까지 연간 530만본 생산 규모의 함평 공장을 건설하고 2028

년부터 본 가동에 나설 예정이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은 “금호타이어의 윤리경영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 전사적 윤리경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행사를 열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활동을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력과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지역기업에 더 인색한 지역금융기관 대출

### “정책금융 등 인센티브 고려해야”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방 소재 금융기관들이 전국과 비교해 기업 대출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에 있는 기업의 대출이 감소하면 지방 금융기관에서 대출 공급을 더 민감하게 줄겠다는 의미로, 열악한 지역 기업의 경영 환경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현준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초청해 ‘기업의 대출 충격에 대한 지역 금융 반응의 이질성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과 같은 지역에 있는 지방은행의 대출탄력성은 약 1.3배 수준으로, 시중은행 등 전국 단위 금융기관 대비 3~4배 가량 높았다. 이는 기업 대출 증가율이 1%포인트(p) 하락하면 지역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공급을 전국 단위 금융기관보다 0.3%p가량 더 많이 줄겠다는 뜻이다.

임 교수는 “지역금융의 민감도가 높다는 것은 지방 소재 기업들이 대출 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때 지역금융이 대출을 늘리는 등 ‘완충’ 역할을 하기보다 대출 공급량 감소폭이 더욱 커져 실적 부진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지역금융이 전국 단위보다 기업 대출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이유로는 한정된 지역 기업 등 유지할 수 있는 자산운영 범위가 좁다는 점을 꼽았다. 기업 실적이 부진할 때 시중은행 대비 지방은행이 외부자금 등 자본조달 과정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서 자본 여력이 급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 대출 변동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 민감도에서도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았고, 강원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순으로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임 교수는 “지역과 가까운 거리에서 친화적인 운영을 이어온 지역금융들이 iBANK 사례와 같이 시중은행화 되고 있다”며 “지역금융이 본연의 ‘관계금융’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과 공공부문 예치금 등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연일 최고치 경신…금값 상승세 이어갈까

### 일각선 ‘투기세력’ 경고도

국제 금(金) 시세가 두 달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최근의 강한 상승세가 투기세력에 의한 측면이 크다는 경고가 나와 눈길을 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산하 금속선물거래소 콰멕스(COMEX)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보다 1.9% 오른 온스당 4469.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최고가는 온스당 4484.5달러였다.

옥지희 삼성선물 연구원은 “전일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자 금과 은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귀금속군이 일제히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국제 금 시세가 올해 상승률(67%)만큼은 아니어도 내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삼성선물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2026년 금 목표가격으로 온스당 5000달러를 제시하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15.5%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최근 금값을 강하게 밀어 올린 배후에 투기성 자금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국제 금 가격이 두 달 만에 최고치를 새로 썼고, 국내 금 가격은 환율 상승(원화 약세) 효과가 더해져 지난 한 달간 거의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면서도 “강력한 금가격 상승세의 배경은 ‘구조적 기반’ 위에 ‘단기 투기세력의 모멘텀 전략’이 더해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흔히 금 가격 상승 배경으로 지목되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중앙은행의 매입, 지수상장펀드(ETF)로의 자금 유입이란 ‘3대축’만으로는 최근의 강력한 상승세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백 연구원은 “현재 금 시장은 기초적 여건을 넘어서는 모멘텀 중심의 투기적 장세 성격을 보인다”면서 “금 가격이 중요한 심리적·기술적 저항선을 돌파할 때마다 추세 추종 펀드 펀드와 단기투기세력의 자동 매수 주문이 대거 실행되고 있다”고 짚었다.

/연합뉴스

## 돌아온 외국인, 이달 2조원 가까이 순매수

### 코스피 ‘산타렐리’ 이끌까 촉각

이달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원 가까이 ‘사자’를 기록하며 연말 코스피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 9642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달 1~30일 14조4256억원을 순매도했으나 이달 들어 ‘사자’로 돌아섰다.

지난 22일에만 1조1017억원을 사들인 외국인은 이날도 9550억원을 순매수하며 사자 행진을 이어갔다.

외국인의 매수세는 반도체 대형주와 자동차주에 집중됐다.

이달(1~23일)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은 SK하이닉스(7886억원), 삼성전자우(4616억원), 현대차(3014억원), 가아(2037억원) 등이 뒤를

이였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인공지능(AI) 거품론 우려가 완화하고 주요 기술주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잠시 주춤했던 국내 반도체주에 다시 매수세가 쏠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관세 부담에 ‘불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자동차 관련 종목은 불안 요인을 탈면서 연말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4117.32 (+11.39)	
▼ 코스닥	919.56 (-9.58)	
▼ 금리 (국고채 3년)	2.963 (-0.036)	
▲ 환율 (US D) <오후 4시 58분 기준>	1482.70 (+23.60)	